

정유4사, 석유제품 가격인하 압박

이명박 대통령, 적정수준보다 비싸 지적 ... 다시 인하작업 불가피

이명박 대통령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적정수준보다 높다고 발언해 정유4사에 무언의 압박이 가해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월13일 석유제품 가격에 대해 “국제유가와 환율의 변동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월13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주제로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유가가 다른 품목의 물가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주유소 등의 행태가 묘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갈 때 (휘발유 소매가격이 리터당) 2000원이었다면 지금 80달러 수준이면 조금 더 내려가야 할 텐데 1800-1900원 정도 하니 더 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유4사의 가격 책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 인하 가능성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은 석유제품 가격 체계를 봐서 국민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해보라는 뜻”이라며 “업계도 나름대로 계산법이 있을 것이고 정부도 나름 지침이 있을텐데 석유제품 가격이 서민 생활에 굉장히 민감하고 물가에서 가중치가 크다는 면에서 합리적으로 잘 살펴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유 4사는 대통령의 발언을 감안해 석유제품 가격의 재검토 및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1/14>